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볼리비아 성명구 선교사입니다.
늘 잊지 않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볼리비아 사역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큰 힘이됩니다.
저희의 이번 선교편지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강건 하시기를 이곳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구 선교사드림

샬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볼리비아는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그렇듯이 이곳 또한 비가 여러지역에 고르게 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생활고 때문인지 뉴스에서는 더 많은 범죄와 사고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전에 도착 하였을때는 잘 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청소년 실종 사건이 하루가 멀게 그 숫자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페루에서 300명의 집단이 들어와 6살 아이에서 19살 청년까지 마구잡이로 납치를 할 계획으로 입국했다는 소식과 함께 모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치안으로는 볼리비아가 남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젠 그 말도 무색해 지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청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의 청년들이 참석하게 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절함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더 자주 모여 성경 공부외에 토론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우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며 이땅과 이땅의 젊은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들을 통해서 볼리비아가 변화되고 새로운 청년 영혼들이 부흥으로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리비아 교회가 가진 문제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음에 볼리비아에 미래가 희망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 번 모임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와서 돌아갈 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에 차 있는 것을 보는 저희는 참으로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보낼 수 있음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 모임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모일때 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요청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뿌린 이 복음의 작은물결이 큰 부흥의 파도가 되길 그래서 이 땅뿐 아니라 전세계를 움직이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발예그란데 교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 작은 인원의 성도들이지만 저들의 힘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는 힘들다, 고되다, 못하겠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며 울며 순종함으로 걸어온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보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에 저희와 같이 이 길을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며 걸어온 모든 성도님들께 이 열매를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이 역사 함께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것은 저희 두 부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졌습니다. 멕시코에서 부터 이 곳 볼리비아까지의 사역으로 많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 부분에 동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늘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시는 사랑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성명구 은주 가을 가람 드림
기도제목

1. 발례 그란데 교회의 성장과 사역자 에벨리오 형제를 위해서, 교회가는 도로가 늘 복구 되도록
2. 대학 청년 사역이 잘 정착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되도록
3. QT집 나눔 사역이 활성화 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 지도록 (현재 매월 100권씩 형편이 어려운 현지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4.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5. 멕시코 교회들을 위해서 (까라솔, 짜르꼬, 메까떼쎅, 꼬랄레로, 삐노떼빠 교회 사역자: 프란시스코 형제, 블랑카 자매)
6. 사역에 필요한 차량이 속히 구입 되도록(교회 예배를 위해 매주 왕복 10시간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